

2026 **불가리아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9
3. 주요 이슈 Pick	12
가. (경제·산업) 신규 원전 추진, BESS 확대 등 에너지 산업 고도화 추진	12
나. (외교·통상) 유로존 도입 확정 및 탈러시아 정책으로 EU 통합 강화	13
다. (사회·문화) 소득별 소비 다양화 및 경험소비 확대로 한류 확대	14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7
가. 시장 특징	17
나. 무역	20
다. 산업	27
라. 투자	29
2. 유망 산업	35
가. 에너지 산업	35
나. 자동차 부품 산업	37
다. ICT·전자기기 산업	39
3. 협력 기회	41
가. 통상·G2G	41
나. 프로젝트 : 신규 원전 및 방산 분야	42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5
2. 진출전략	47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3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55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56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7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8 |
| 3. 주요 이슈 Pick | 12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26년 불가리아는 EU 통합 가속화,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개선

-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은 2.9%로 2025년 2.6% 대비 소폭 개선 예상
 -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26년 2.3%로 안정 예상하나, 유로화 도입이 변수
- * EIU(One Click Report, 2025년 10월)

□ (호재 요인) 유로화 도입 및 정치적 안정 회복으로 경제 성장 우호적 환경 조성

- 유로화 도입을 통한 제도 신뢰성 및 금융 통합 강화
 - 2026년 유로 도입 확정과 함께 유로화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 건전성·물가 안정·법제 정합성 등 금융·경제 개혁 동시 추진 중
 - 불가리아 재무부가 발표한 '26년 국가 예산 계획 및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재정수지 적자 3%, 국가총부채는 GDP 대비 31.3%로 안정 전망*
- * EU 회원국 전체 정부 채무 비율 80.7%(2024년 기준), 루마니아 57.3%(2025년 2분기 기준)

불가리아의 유로화 채택 조건인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Criteria) 기준 충족 현황

기준	항목	불가리아 최근 현황
물가 안정성	12 개월 평균, 기준국 평균 +1.5%p 이하	2.8%(기준값) → 2.7%(2025년 4월 기준 불가리아)
재정 적자	GDP 대비 3% 이하	-3.0%(2024년)
국가 부채	GDP 대비 60% 이하	24.1%(2024년)
환율 안전성	ERM II(유럽환율조정메커니즘) 내에서 최소 2년간 안정 유지	2020.7.10.(참여시작일)~2026.1.1(예정)
장기금리 수준	물가가 안정된 3개국 평균보다 2%p 이하	약 5.1%(기준값) → 약 3.9%(최근 12개월 기준)

- 정치적 안정 회복을 통한 정책 일관성 강화

- 2024년 총선 이후 2025년 1월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

□ (호재 요인) 대내외 안정을 기반으로 민간 소비와 공공 투자가 증가 예상

- 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에 따라 민간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며, 공공 투자는 EU 구조기금 집행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가계소득의 경우 2024년 약 29%였던 연소득 2만 5,000달러 이상 가구 비중이 2029년 43.9%로 증가할 전망

- 실업률은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6년은 3% 초반대 유지 예정

- 2024년 정치 불안으로 EU 자금 집행률이 낮아 총고정자본형성*이 둔화되었으나, 새 정부 출범 (2025년 1월) 이후 EU 기금 집행률 개선으로 공공 투자 확대 전망

* 경제가 새로 만든 고정자산(기계·건물·인프라 등)의 순증가분

□ (부진 요인) 노동 인구 감소 및 탈러시아發 에너지 가격 상승

- 총 인구는 2020년 690만 명 → 2025년 647만 명 감소, 20~39세 핵심 생산가능인구 최근 5년간 연평균 1.2% 감소

- 2025년 불가리아의 고용률은 68.1%로 EU 평균(74.7%)을 크게 하회하며, 특히 정보통신·건설·제조업 분야에서 숙련 인력 부족이 심화됨

-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 종료에 따른 정유 산업 부담 확대

- 불가리아는 EU 회원국 중 예외적으로 2022년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한시적 유예를 적용받아 왔으나, EU 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유예조치가 2025년 말 종료 예정

- 부르가스 지역에 위치한 Lukoil 정유공장 2026년부터 비(非)러시아 원유를 수입, 이에 따른 운송비·조달비 상승(약 15~20%)이 예상

□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6.9	6.9	6.8	6.5	6.4	6.4	6.3
명목 GDP	십억 달러	69.1	80.3	84.1	101.6	112.2	118.5	128.0
1인당 명목 GDP	달러	9,919.3	11,683	13,101	15,720	17,412	18,510	20,100
실질 성장률	%	-3.8	4.2	2.6	1.9	2.8	2.6	2.9
실업률	%	7.4	5.3	4.9	4.4	3.6	3.4	3.1
소비자물가상승률	%	1.2	2.8	11	9.5	2.4	3.7	2.3
재정수지(GDP 대비)	%	-3.0	-3.7	-4.2	-3.1	-3.1	-2.9	-2.8
총 수출	백만 달러	31,080	40,569	47,255	46.9	47.6	51.2	54.8
(對韓 수출)	백만 달러	0.4	0.3	0.3	0.4			
총 수입	백만 달러	33,216	44,469	-51,754	50.8	52.9	57.3	61.8
(對韓 수입)	백만 달러	0.2	0.2	0.2	0.2			
무역수지	백만 달러	-2,136	-3,901	-4,499	-3.9	-5.3	-6.1	-7.0
경상수지	백만 달러	-456	1,443	-448	-0.3	0.9	0.2	0.3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59	1.66	1.78	1.81	1.79	1.69	1.6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0.4	0.9	1.1	1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6	2.5	3.2	4.4	-	-	-

자료: EIU, IMF(국제통화기금), 한국무역협회, WB(세계은행)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내수 회복과 공공투자 확대로 2025년 경제 2.6%대 성장세 유지
 - 성장 동력은 내수 중심으로, 실질임금 상승 및 고용 안정으로 인한 민간 소비 확대, EU 회복기금(RRF) 집행으로 인한 공공 투자 증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소비) 임금 상승으로 민간 소비 확대, 세대별 경험소비 패턴 다변화
 -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 안정에 따른 가계소득 개선 효과 2025년 상반기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 불가리아의 소비지출 구조는 필수소비 중심에서 점차 비필수소비 항목으로 이동 중, 외식·여행·레저 등 경험소비 항목의 지출 증가
- (공공 투자) 2025년 상반기 총고정자본형성(GFCF)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 EU 회복기금(RRF) 및 구조기금(Cohesion Fund) 프로젝트 집행에 따른 공공 투자 확대 효과 향유 중

- (민간 투자) 높은 금융비용과 숙련 노동인력 부족으로 민간 투자 회복은 제한적
 - 2024년 자료 기준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평균 4.61%로 기록. 이는 루마니아(약 3.5%), 세르비아(약 3.8%) 등 인근국보다 높은 수준
 - 202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2020년 대비 약 4.8% 감소, 숙련 기능직 부문 인력은 최근 5년간 약 10만 명 감소
- (산업생산) EU 기금으로 회복한 제조업, 탈러시아로 주춤한 에너지·화학업
 - 2025년 1~8월 기준 산업생산지수 기계·전기전자(+ 4.2%), 식품가공(+ 3.5%), 자동차 부품(+ 2.9%)으로 제조업 부문(+2.5%) 성장세 견인
 - 반면 동기간 기준 화학·석유제품(-2.8%), 에너지 생산(-1.6%) 부문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및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 영향으로 둔화
- (대외 교역) EU 경기 둔화로 역내 수출 감소, 탈러시아 등 공급망 재편으로 역외 수출 증가
 - EU 전체 실질 GDP 성장을 2025년 약 1.1%, 과거 평균이나 많은 국가들의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 기록, 對EU 교역이 전체 수출의 약 67%를 차지하는 불가리아 측에 악재로 작용
 - 반면, 非러시아산 원유로 전환 준비 과정에서 유럽 내 공급 불안 시기에 터키·중동 시장으로 수출 물량 전환을 확대, 화학·플라스틱 제품(+6.8%), 정유제품(+4.9%) 역외 수출 증가

2. 정치(정책) 환경

- 신규 연립정부 출범으로 정치 안정성 회복과 친EU 개혁정책 강화
- 유로화 도입 충격 완화 제도 도입 및 사회 안정망 강화
- 탄소중립, 투명성 강화,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체질 개선 정책 추진

가. 정부 현황

□ 신규 연립정부 출범으로 정치 안정성 회복 및 친EU 개혁정책 강화

-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7번의 총선을 치르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 상태 이후 2025년 1월
젤랴즈코프(GERB-SDS당) 연립정부 국회 신임 투표 통과
 - GERB-SDS 정부는 다년간의 단기 내각 교체로 인한 정치 불안정을 종식시키며, 의회 내 과반 안정 확보를 통해 행정·입법 연속성 회복 추진

2024년 총선, 주요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 석)

정당명	50대 총선('24.6.9.)		51대 총선('24.10.27.)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유럽발전시민당(GERB) + 민주세력연합(SDS)	24.7	68	25.0	66
우리는변화를계속한다당(PP) + 민주당(DB)	14.3	39	13.9	36
부흥당(REVIVAL)	13.8	38	13.5	33
권리와자유운동당(MRF)	17.1	47	11.8	29

자료: Global Trade Atlas

- 새 정부 유로존 도입·균형재정·회색경제 축소·EU 기금 효율 집행을 핵심과제로 제시
 - 안정적인 유로화 도입을 정부 우선과제로 명시, 균형재정 및 예산 건전성 회복 등으로 유로 도입 준비 병행 중
 - 전자세금계산서(E-invoicing) 도입 등 세정 현대화, 자금세탁 대응 강화로 비공식 경제 축소 및 FATF '그레이리스트'* 탈피 추진 → 금융투명성 제고
 - * 불가리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현재 감시대상국(그레이리스트)
 - 유럽 결속기금(Cohesion Fund) 및 RRF(Recovery Resilience Facility) 자금의 효율적 집행 추진, 2025년 상반기 기준 EU 기금 사용률 전년 대비 12% 증가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2026년 유로화 도입 대비 EU 기준 정합화 및 국내법 강화

- 유로화 전환을 위한 가격이중표시제 등 관련 법률 개정 → 인플레이션 억제
 - 의회는 새 법안을 통해 8월 8일부터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해 불가리안 레프(BGN)와 유로(EUR)의 병기 표시를 의무화(2025년 7월 개정)
 - * 위반 시 벌금이 약 2,556~51만 1,29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음
- 경제·재정, 구조 개혁 관련 조치
 - EU 경제 거버넌스 개혁체계에 따라 순지출 증가율(net expenditure growth)*을 새로운 재정규칙 지표로 설정
 - 재정 적자 GDP 대비 3% 미만·공공채무, GDP 대비 60% 미만 유지라는 EU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명시
 - * 재정지출 증가폭을 통제하는 새로운 지표로, 과거 단순 적자율 기준에서 확장된 개념
- 외국인 체류 및 이민정책 정비
 - 외국인법(Foreigners Act) 개정을 통하여 외국 기업 대표자의 거주허가 체계 강화
 - * ①고숙련 인력의 체류 허가 기간 1년 → 최대 5년 연장, ②고용주 변경 시 재허가 절차 간소화, ③EU 역내 체류기간 합산을 인정해 장기거주자 지위를 쉽게 부여하도록 허용
 -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 체류제 신설을 통한 글로벌 인력 유치 유도
 - * 비EU 원격근로자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 면제를 부여

□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유로화 도입 충격 완화 추진

- 최저임금 2025년 기준 월 933레프(약 477유로)로, 전년 대비 19.6% 인상 발표
 - EU 최저임금지침(EU Directive 2022/2041)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반영
 - 인근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25년 인상폭이 가장 높음

불가리아 인근 동유럽 국가 최저임금 비교(2025)

국가명	월 최저임금(유로)		전년대비 인상률(%)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불가리아	399	477	9.9	19.6
루마니아	586	663	-3.3	13.1
크로아티아	764	840	9.1	9.9
슬로바키아	700	750	8.4	7.1
헝가리	617	703	6.6	13.9
세르비아	477	520	8.9	9.0

자료: Eurostat, IMF WEO(세계경제전망)

□ (ESG) 신규 정부 출범 이후 EU 녹색·디지털 전환 목표와의 정합화 추진

- 신규 연정은 2025–2029 정부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경제정책 전반에 반영, 핵심정책 방향으로 △ 탄소중립 경제 이행, △ 디지털 정부 완성, △ 투명한 공공조달제도 구축 추진 중

* 2025년 1월 출범한 GERB-SDS 신규 연립정부가 내각 구성 직후 채택한 공식 국정운영 계획

- (환경·에너지) 불가리아는 EU의 55% 탄소감축 목표(Fit for 55 Package) 반영을 위해 'NECP(국가 에너지기후계획) 2025' 제출('25.3월), 재생에너지 비중 33% 이상,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유럽위원회에 제시함
 - NECP 개정안 제출 이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주요 국내법 개정·시행

NECP 2025 반영 주요 국내법 개정 목록

법령 명칭	주요 개정 내용	공포 시기
Renewable Energy Act Amend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CP 2025의 재생에너지 비중 33%(2030년) 목표를 반영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그리드 접속 의무화 태양광·풍력 발전 인허가 절차 180일 → 90일 단축 	'25.3월
Energy Efficiency Act Amend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국가 에너지 절약목표 : 최종 소비 기준 1.9% 절감 공공건물 에너지소비 등급(≥ C등급) 의무화 	'25.5월
Climate Change Mitigation Act Amend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CP의 탄소배출 40% 감축 목표 법정화 EU ETS(배출권거래제) 4기(2026~2030) 반영 탄소세 적용범위 확대(에너지·운송 농업 포함) 	'25.6월

자료: 불가리아 관보(Official Gazette)

- (사회) 고용률 73% 달성, 여성 고용률 68% 달성 등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EU 사회기금+(ESF+) 재원을 활용해 'Green Skills Initiative' 시행

- '25년 기준 전체 산업 고용의 약 28% 여전히 고탄소 산업에 종사, 사회기금을 활용해 고탄소 종사자·청년·이공계 인력을 재교육하여 녹색 산업으로 전환·유치 및 고용률 확대 추진
- 어린이 돌봄 서비스 확대, 원격근무 장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기업 측에 '일·가정 양립 인증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지배구조) EU Anti-Corruption Action Plan 2025~2027을 채택, 디지털 정부 확대 및 공공조달 투명성 강화
 - 2020년 이후 전자조달시스템(e-Procurement) 전면(100%) 도입 및 운영 중
 -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입찰정보 공개·사후감사 강화 등 투명성 제고('25.5월)

3. 주요 이슈 Pick

- EU 기조에 맞춰 에너지 산업의 고도화와 탈탄소 본격화
- 유로화 도입 및 탈러시아 정책 → EU 체제로의 통합 가속화
- 경험소비 확대 등으로 인한 한류 소비 빠르게 확산

가. (경제·산업) 신규 원전 추진, BESS 확대 등 에너지 산업 고도화 추진

□ 신규 연립정부 에너지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 신규 원전 건설 +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안정성 확보 추진
 - 코즐로두이 원전 내 신규 원자로 2기 증설(AP-1000 기술) 프로젝트가 추진 중. 7호기는 2033년, 8호기는 2035년 준공을 목표
 - 불가리아 역사상 최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 정부의 주요 관심 사안

※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7·8호기 사업 개요

- 소련의 친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1974년부터 운영, 6호기까지 건설하였으며, 1~4호기는 중단
- 현재는 5·6호기(2,176MW)만 운영, 불가리아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40% 이상을 차지
- 2033년까지 7호기, 2035년까지 8호기(2,200MW) 웨스팅하우스 AP1000 기술 도입 추진
- '24년 11월 웨스팅하우스+현대건설 ESC 계약 체결, 향후 동 컨소시엄으로 EPC 추진 예상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전력망 유연성 확보를 위해,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를 포함한 전력저장 인프라 구축을 중장기 전략으로 채택. 총 800MW, 약 6억 유로 규모 BESS 인프라 시설 투자계획 명시
- RESTORE 1·2차 프로그램*을 통한 BESS 보조금 국가 사업 추진
 - * 불가리아 에너지부가 주관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 주로 에너지 저장투자 촉진을 목표
- 관련 분야·산업
 - (원자력·전력플랜트) 신규 원전 건설 기자재, 기존 원전 및 화력발전소 노후 설비 대체, EU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 투자 분야 등
 - (배터리·전력망 설비) BESS, 송·배전·변전설비, 전력제어 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야의 신규 수요 대응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향후 신규 원전 EPC 계약 체결 확정 시, 원전 전력·건설 기자재 발주 및 협력 기회 증폭 예상
 - BESS 시스템 통합, 에너지관리 솔루션 등에서 경쟁력 보유한 국내 기업 유리한 위치 선점 가능

나. (외교·통상) 유로존 도입 확정 및 탈러시아 정책으로 EU 통합 강화

□ '25.1월부 육상 국경 통제 완전 해제(생겐 정회원국), '26.1월부 유로화 공식 도입 예정으로 EU 통합 강화와 동시에 탈러시아 기조 확대

- (배경 및 내용)

- 불가리아 2024년 공항·해상경로에 이어 육상 국경 이동의 전면 자유화 달성하여 생겐 협정 완전 가입 완료
- 2007년 EU 가입 이후 19년 만에 유로화 도입 21번째 유로존 회원국으로 확정
* 2025년 7월 8일, EU 경제재무이사회 불가리아의 2026년 1월 1일부 유로존 가입을 공식 승인

유로존 가입을 위한 불가리아의 법적 조치 사항

법명	내용	개정일
불가리아 중앙은행법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이양 명문화	2024.11.28
회계 및 통계법	재정 데이터 산정기준을 ESA2010 기준으로 통합	2025.1.19
화폐유통 및 소비자보호법	레프로(Lev)와 유로의 병행가격 표시 의무기간 6개월 규정	2025.3.22

자료: 불가리아 관보(Official Gazette)

- 2025년 2월부 Lukoil Neftochim Burgas 정유소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 러시아산 핵연료 공급계약 해지 등 탈러시아 정책 본격화

※ Lukoil Neftochim Burgas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사태

- 불가리아 부르가스 지역에 위치한 발칸 최대 규모 정유시설(일일 19만 배럴 처리능력)
- 기존 원유의 **약 80%를 러시아에 의존**
- 2025년 2월 1일부로 정부 요청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공식적 중단
- 非러시아산 원유(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로의 전환 진행 중

- 관련 분야·산업

- (금융·통화) 유로화 도입으로 환위험이 사라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금융기관의 시장진입 비용 감소, 전반적인 금융 리스크 감소 예상
- (물류) 유로화 결제권 확대로 인한 수입재화 대금결제 간소화, 교역비용 절감
- (에너지·자원) 러시아산 원유·가스 의존 축소 후, 그리스·루마니아를 통한 역내 공급망 다변화 본격화. 재생에너지 투자 EU 기금 중심으로 확대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유로화 도입으로 對불가리아 교역 시 환율 리스크 축소 및 유럽 내 결제망 사용 가능

- 금융규제 안정화 및 신용등급 개선으로 현지법인·지사 운영 시 금융비용 절감 가능
- 탈러시아 정책으로 비러시아 에너지·기계류 공급망의 대체 수요 확대, 한국산 기자재·설비의 신규 납품 기회 증대
- 단, 탈러시아와 동시에 에너지 수입 전환기에 따른 유가·전력단가 상승 가능성 있음

다. (사회·문화) 소득별 소비 다양화 및 경험소비 확대로 한류 관심 확대

□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소비 여력 확대 및 소비 패턴의 다양화 진행 중

-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 시장 확대 및 소비 구조 고도화 진행 중
 - 2024~2025년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약 6.8%,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생활필수재 지출 비중이 감소, 반면 문화·여가·디지털 서비스 관련 소비가 증가 중
 - 가계소비 총액은 2023년 591억 달러 → 2025년 710억 달러로 2년간 약 20% 증가
 - 여가·교육(22.4%), 호텔·외식(20.5%) 증가하여 생필품 중심에서 경험·서비스 중심 소비로 이동
 -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경험소비가 확산되어 여행·공연·패션·K-콘텐츠 소비가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3~'25년 불가리아 소비재 지출 추이

(단위: 억 달러)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추정)	2026년(예상)
음식·음료·담배류	15.8	16.6	17.9	19.0
의류·신발	2.0	2.2	2.4	2.6
주택 및 가정용 연료	10.7	11.6	12.7	13.7
가정용품 및 관련 서비스	3.4	3.6	3.9	4.2
건강	3.8	4.1	4.2	4.5
취미·교육	4.9	5.4	6.0	6.5
호텔·외식	3.9	4.3	4.7	5.1
그 외 제품 및 서비스	3.9	4.3	4.7	5.2

자료: EIU

- 관련 분야·산업
 - (소비재) 의류·신발 지출은 '23년 20억 달러 → '25년 24억 달러(+20%) 증가로, 증가 패션·K-패션 브랜드 수입 증가세와 맞물림. 화장품·식품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도 동반 상승, 중산층 중심의 체험형 소비 확대

- (문화·서비스) 여가·교육 지출의 증가세로 한국어 학습, K-콘텐츠, 문화행사 참여 수요가 확대됨.
온라인 스트리밍과 OTT 소비 증가로 K-드라마·K-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강화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한류 인지도 상승으로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국 소비재의 현지 진출 기반 강화
- 체험형 마케팅 소비와 SNS 기반 홍보 효과 극대화, 중산층 확대로 밸кан유럽 내 소비허브로서 불가리아의 전략적 가치 상승
- 단, 고소득층은 여가·관광·프리미엄 식품비 비중을 확대한 반면, 중·저소득층은 온라인 쇼핑·중저가 브랜드 소비·가성비 문화활동으로 소비 행태 양극화 중
- 소비 격차 확대에 따른 시장 양극화를 고려하여 프리미엄 vs 가성비 시장 구분 필요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7
2. 유망 산업	35
3. 협력 기회	41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발칸 반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서유럽 진출 교두보
- 시장 규모 등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동유럽의 틈새시장
- 수입시장은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 및 터키, 중국 등의 높은 시장 점유율 유지

가. 시장 특징

□ 발칸 반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서유럽 진출 교두보

- EU 회원국으로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서유럽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남
 - 유로화 도입과 완전한 생겐 가입 등 EU 융합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EU 역내국 및 인근 동유럽 시장 진출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
 - 개인 및 기업 소득 세율이 10%로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며, 현지의 낮은 임금을 활용한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 진출에 유리함
- * 현지 평균 임금은 약 1,300유로로 헝가리(1,630유로), 폴란드(2,000유로)와 비교해도 낮은 편

□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동유럽의 틈새시장이자, 유럽 내 작은 IT 강국

- 인구 64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1만 8,000 달러 내외의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 규모가 작은 시장으로 바이어의 최소 거래 물량이 적은 편, 대기업의 시장 관심도가 낮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
 - * '23~'25 對불가리아 수출 중소·중견기업(개사) : ('23) 824 → ('24) 841 → ('25.10) 746
- IT 정보통신 분야 경쟁력 보유, 관련 다양한 4차 산업 스타트업 활성화
 -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107Mbps로 세계에서 12위, 5G 통신망도 구축 확대 중으로 AI, 데이터 기술, 중소기업의 IT 기술 활용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 '19년 5G 통신망 설치율은 0%였으나, 2023년 67%가 5G를 이용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
 - 불가리아는 예전부터 러시아, 유럽에 컴퓨터 기술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하던 IT 아웃소싱 기지였으며, 현재는 AI, 핀테크, 헬스테크 분야 스타트업 설립 활발

□ 제조업 기반은 약하나 투자 및 산업 개발 확대를 통해 산업 구조가 점차 고도화

- 일반 소비재부터 핵심 부품소재를 주로 국외에서 조달, 해외 경제 상황에 민감
 - 제조업 기반이 약한 편으로 자동차, 의료기기, 전자기기 등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수입에 의존
 - 2024년 기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4%로, 루마니아(25.8%), 체코(27.4%)에 비해 낮은 수준

'24년 국가별 산업 GDP 구성비 비교

항목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EU 평균
농림어업	4.1	3.9	2.2	1.8
제조업	22.4	25.8	27.4	20.5
건설업	6.3	5.8	6.1	6.0
도소매·운송·관광업	20.1	18.7	17.6	19.1
정보통신	5.8	6.1	7.3	6.8
금융·부동산	14.2	12.5	11.6	14.0
공공서비스·교육·보건	18.3	17.2	16.0	18.4
총계	100.0	100.0	100.0	-

자료: Eurostat, National Accounts by Industry, 불가리아 통계청

- 높은 수입 의존도로 인해, 주요 교역국(독일, 튀르키예, 루마니아 등)의 물가 상황이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불가리아로 전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
- 단, 최근 EU 구조기금 및 민간 투자 유입 증가로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 진행중
 -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Industrial Zones and Parks Act(2023 개정)'을 시행, 소피아·플로브디프·스타라자고라 지역을 중심으로 총 18개 산업단지를 지정,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토지임대와 세제혜택 제공 중
 - 특히 2024년 이후 IT·전자·자동차 부품·기계 분야의 유럽계 OEM 및 서플라이어 투자 확대, 고부가 가치 제조업 비중이 점차 상승 추세
 - * 투자 사례('24년) : 독일 Leoni AG(전장케이블), 프랑스 Montupet(알루미늄 부품), 미국 Sensata(전자 센서) 등
 - 2023~2025년 제조업 고정자본 투자액은 연평균 +6.2% 증가, EU 평균 상회

'23~'25년 제조업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 비교

(단위: 연평균%, 명목 기준)

연도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EU 평균
2023년	+5.8	+4.1	+3.6	+3.5
2024년	+6.5	+4.3	+3.9	+3.8
2025년(추정)	+6.3	+4.7	+4.0	+4.0
2023년~2025년 연평균	+6.2	+4.4	+3.8	+3.8

자료: Bulgarian National Bank, Investment Statistics Bulletin 2025

□ EU 단일시장 회원국으로서 EU 공통 규정 대다수 적용

- 2024년 이후 EU 단일시장 내 새로 제정된 지침·규정을 국내법 및 표준체계에 신속히 반영하는 추세
 - 2025년 기준 산업제품의 90% 이상이 CE 마크(Conformité Européenne) 인증 대상
 - 튀르키예나 세르비아처럼 CE와 자국 인증을 병행하는 국가들과 달리, 불가리아는 'EU 적합성 선언 (DoC)'만으로 전면 유통 가능

불가리아 주요인증 현황

주요 인증	적용 대상	담당기관	인증마크
CE(Conformité Européenne) 인증	전기전자, 기계, 건축자재, 의료기기, 완구 등	경제산업부, 불가리아표준화기구(BDS)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전기전자 제품	환경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 플라스틱, 도료 등	화학물질청	
에너지효율 라벨 (Energy Label Directive)	가전제품,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청	
식품·화장품 인증 CPNP	식품, 음료, 화장품 등	식품안정청·보건부	
이마크(e-Mark)	자동차 부품, 기계, 차량용 장치	교통통신부· 교통인증청	
의료기기 MDR 인증	의료기기·진단기기	보건부· 의료기기청	
정보보안·통신기기 RED 인증	통신·무전기기	전자통신규제위원회	

자료: KOTRA 소피아무역관 자체 조사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22년 수출은 에너지·금속 가격 급등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21.3% 성장했으나, '23~'24년에는 유럽 경기 둔화와 금속·정유제품 단가 하락으로 2년 연속 감소세(-5.9%, -2.9%)
- '25년 1~8월 누적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수준에 머물러, 특히 EU(전체 수출의 72%)는 독일·이탈리아 수요 둔화의 영향
- (수입 규모) 수입 규모는 '22년 고물가·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연간 +25.5% 증가, 이후 '23~'24년은 안정세를 보이며 각각 -7.4%, +0.3%로 조정
- '25년에는 내수 회복과 설비투자 증가(기계·부품, 화학제품)로 수입이 다시 소폭 증가세를 유지 중임.

'21~'25년 불가리아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수출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수출총액	41,150	49,919	47,984	46,594	28,720
수입총액	46,203	57,953	53,638	53,796	35,238
교역량	87,353	107,872	101,622	100,390	63,958
무역수지	-5,053	-8,034	-5,654	-7,202	-6,518

자료: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독일·루마니아·이탈리아 등 인접 EU 시장 비중이 압도적이며, 비EU 시장 중 터키 수요가 꾸준히 확대
- 2024년 기준으로 독일이 7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23~'25년 불가리아 주요 수출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1	독일	6,531	7,093	3,722
2	루마니아	4,401	4,119	2,929
3	이탈리아	3,451	3,237	1,870
4	튀르키예	2,803	3,192	2,238
5	그리스	2,645	2,440	1,741
6	프랑스	1,555	1,526	879
7	폴란드	1,120	1,178	725
8	미국	1,229	1,105	688
9	세르비아	1,038	1,022	635
10	벨기에	1,501	1,004	361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출 품목) 전자기기·기계류 중심의 산업형 품목 비중이 높으며, 자동차 부품·정밀 부품 수출이 점차 확대 추세
 - 불가리아는 서유럽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조립 가공 후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
 - 독일 백색가전의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가공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섬유 원단을 수입 후 봉제 가공하여 최종 의류를 주변국으로 재수출
 - 전체 수출의 60% 이상이 산업중간재(전자기기·기계류·금속) 중심, 농식품(곡물)·의약품 등 내수형 품목 비중은 10% 내외로 제한적

'23~'25년 불가리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 류	품목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85	전자기기	5,406	5,166	3,136
74	동, 구리류 제품	3,753	4,718	2,224
27	원유	3,734	3,633	2,132
84	보일러, 기계류 등	3,904	3,614	2,237
87	차량류	1,712	1,649	1,175
10	곡물류	2,312	1,610	1,249
39	플라스틱 제품류	1,442	1,489	885
26	오어, 슬레이저류	1,225	1,359	968
30	의약품류	1,358	1,310	777
90	정밀제품류	1,142	1,190	748

자료: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2024년 기준 독일은 6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불가리아 최대 수입국 유지
 - EU 회원국 중 독일, 루마니아,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서 수입이 많으며, 비회원국이나 주변국인 튀르키예로부터의 수입량도 많은 편
 -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 5위 수입국
 - * 한국은 2025년 기준 불가리아의 34위 수입국(일본은 32위)

'23~'25년 불가리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1	독일	6,612	6,219	3,775
2	튀르키예	4,400	4,956	3,152
3	루마니아	3,696	3,835	2,483
4	이탈리아	3,588	3,096	1,756
5	중국	2,908	2,979	2,271
6	그리스	2,346	2,675	1,864
7	폴란드	2,090	2,040	1,232
8	네덜란드	2,193	2,014	1,205
9	헝가리	1,867	1,840	1,151
10	체코	1,514	1,324	823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 품목) 원유, 전자기기, 보일러, 차량류, 플라스틱 제품 등이 주요 수입 품목
 - 흑해 연안 정유시설과 가스거래소가 있어 원유와 가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이 높은 편이며 서유럽발 하도급 제품에 대한 원부자재 수입도 증가 추세
 - 제조업 기반이 약해 전자제품과 승용차, 기계류 등 여전히 수입에 의존
 - * 자동차의 경우 주로 독일·체코·슬로바키아 등 EU 국가와 미국,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

'23~'25년 불가리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HS	품목명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27	원유	5,962	6,607	4,984
85	전자기기	6,482	5,932	3,816
84	보일러, 기계류 등	5,384	5,237	3,361
87	차량류	4,189	3,689	2,278
26	오어, 슬레이지류	2,262	2,964	1,277
39	플라스틱 제품류	2,259	2,247	1,380
30	의약품류	2,225	2,249	1,467
72	철	1,808	1,686	1,065
74	동, 구리류 제품	1,261	1,392	998
73	철 및 금속 제품	1,086	1,024	644

자료: Global Trade Atlas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교역 규모는 연 5-6억 달러 수준, 무역수지 적자폭은 감소 추세
 - 규모가 크지 않아, 개별 수출 건에 따라 주요 품목의 순위 변동이 많은 상황

'23~'25년 한국-불가리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수출액	196	237	147
수입액	358	254	154
교역액	554	491	301
수지	-162	-17	-7

자료: 한국무역협회

- '24년 기준 한국과 약 4억 9,000만 달러 교역, 전년 대비 11.4% 감소
 - (수출) 對한국 '25년 8월 누계 수출액 1억 4,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 감소
 - (수입) 對한국 '25년 8월 누계 수입액 1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9% 감소
 - (무역수지) '24년 적자폭 대폭 축소, '25년은 균형 수준에서 완만한 적자 유지, '23년 불가리아의 정제유·의약품·금속류 수입단가가 급등했던 반면, '24년에는 유가 안정 및 러시아산 대체 조달체계 정착으로 단가가 정상화되며 한국 포함 전체 수입액이 급감

- 한국-불가리아 교역은 중간재 중심이었으나, 소비재(자동차, 화장품 등)도 수출 증가
 - 한국 → 불가리아 : 소재·부품(합성수지, 기계류) 및 주요 소비재(자동차, 화장품 등)
 - 불가리아 → 한국 : 1차 가공재(광물, 의류, 의약품 등)
- 수출 품목
 -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승용차(+15.3%), 전기차(+76.3%), 기타 자동차(+27.5%), 자동차 부품(+23.2%) 등 자동차 관련 품목 전반이 뚜렷한 상승세
 - 불가리아 내 자동차 조립 및 부품 공급망 확장과, EU 친환경차 수요 확대 정책(Fit for 55) 영향으로 분석
 - 특히 전기차는 불가리아가 배터리 충전 인프라 확충 중, 중장기 수요 지속 가능

한국의 对불가리아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237	21.0		총 수출	147	-12.8
1	합성수지	34	-28.1	1	합성수지	21	-6.9
2	기타 기계류	30	1,234.8	2	승용차	13	15.3
3	승용차	21	-22.5	3	기타 자동차	13	55.2
4	금속질삭가공기계	14	476.1	4	전기자동차	12	276.3
5	기타 자동차	13	103.2	5	화장품	12	45.5
6	화장품	12	59.2	6	타이어	9	26.1
7	타이어	10	49.5	7	금속질삭가공기계	7	-31.5
8	경작기계	8	96.5	8	음료	4	61.1
9	전기자동차	7	-37.8	9	폴리에스텔섬유	4	7.7
10	운반하역기계	6	22,508.0	10	자동차부품	3	23.2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수입 품목

- 한국은 나프타, 동광, 직물의제류, 자동화기기, 의약품 등을 주요 수입
- 의류의 경우 불가리아 하청 공장에서 제작한 코트나 가방 등을 수입
- 동광과 자동제어반의 수입액이 증가했고 사료, 기타 금속광물 수입액이 감소

한국의 불가리아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	총 수입	254	-29.0	-	총 수입	154	-11.9
1	사료	63	-47.0	1	나프타	43	0.0
2	직물제의류	33	0.4	2	동광	18	77.3
3	동광	16	0.0	3	직물제의류	14	-35.4
4	자동화기기	15	13.7	4	자동화기기	9	0.8
5	기타 금속광물	11	-27.4	5	기타 금속광물	6	-35.4
6	편직제의류	9	-11.5	6	의약품	6	1.5
7	동조가공품	9	-73.3	7	의료용전자기기	6	212.7
8	동괴 및 스크랩	9	213.2	8	엘리베이터	5	0.0
9	의약품	8	-8.7	9	편직제의류	4	-37.9
10	연초류	6	1.8	10	계측기	4	-0.9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불가리아 진출전략 : 화장품 기업 F사(현지 벤더 D사에 수출 성약)

- 성공 사례 : 'F'사 불가리아 수출 최대 물량인 10만 달러 이상 화장품 수출계약 성사
- 필수 인증 : CPNP
- 성약 소요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온라인 서치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국내 기업은 불가리아 수출이 중단된 기업으로 KOTRA 소피아무역관에서는 대형 유통망 D사에 국내 기업의 제품을 적극 홍보, 벤더사와 화상상담을 추진하고 초도 수출에 성공
 - 유통망은 벤더사와 협의하여 국내 기업 제품의 유통망 입점을 결정
 - CPNP 인증을 먼저 취득해 유럽 진출 준비를 완료한 기업으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제품의 노출 빈도를 극대화



성공 사례로 보는 불가리아 진출전략 : 주류 기업 H사(현지 벤더 F사에 수출 성약)

- 성공 사례 : 'H'사 첫 대량 한국 주류 對불가리아 수출 성공
- 필수 인증 : CPNP
- 성약 소요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KOTRA 소피아무역관 추천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불가리아 내 확산되고 있는 K-컬처를 파악 및 이해하고, 불가리아 젊은 층의 한국 주류 수요 확보, 무역관 네트워크 활용하여 적합한 벤더사 매칭 성공

□ 주요 경쟁국 동향

- 플라스틱 및 제품(HS85) : 중국 5.3% > 베트남 4.4% > 한국 2.0% > 일본 0.1%
 - 중국과 베트남은 저가 수지 및 포장용 제품 점유율 확대, 한국은 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전선피복재 등 고기능성 제품에 한정
- 기계류(HS84) : 중국 11.7% > 한국 1.3% > 일본 0.4% > 베트남 0.1%
 - 중국은 산업용 기계·펌프·소형설비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 일본은 고정밀 CNC, 계측기 중심의 공급 유지, 한국은 전력설비·산업 자동화 부문에서 일부 진입 중
- 자동차·부품(HS87) : 중국 3.0% > 일본 1.7% > 한국 0.6% > 베트남 0.2%
 - 중국·일본이 앞서고 있으며 한국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보조적 위치
- 화장품(기타 메이크업·스킨케어)(HS330499) : 한국 3.7% > 중국 0.2%
 - 한국은 메이크업 및 기능성 화장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 중국은 화장품 원료 중심

'24년 불가리아 주요 산업별 수입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HS 2~6 Code	불가리아 총 수입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플라스틱 및 제품 (HS39)	2,247	45	2.0	118	5.3	3	0.1	99	4.4
기계류 (HS84)	5,237	68	1.3	613	11.7	20	0.4	3	0.1
자동차·부품 (HS87)	3,690	21	0.6	111	3.0	64	1.7	8	0.2
메이크업·스킨케어 (330499)	250	9.3	3.7	0.6	0.2	0.01	0.0	0.0	0.0

자료: Global Trade Atlas

다. 산업

□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구조,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율은 감소 추세

'20~'24년 불가리아 GDP 산업별 현황

(단위: 십억 레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규모	비율								
농림어업	4.2	4.0	6.0	4.9	6.2	4.2	4.7	2.9	4.8	2.7
제조업	26.4	25.2	29.0	23.7	42.6	28.5	42.0	25.9	43.3	24.2
서비스업	74.4	70.9	87.1	71.3	100.8	67.4	115.4	71.2	130.7	73.1
총계	105.0	100.0	122.1	100.0	149.7	100.0	162.1	100.0	178.8	100.0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생산 GDP 통계에 따른 계산)

- 제조업(전자·기계·자동차 부품)

- 전자부품(센서·배선), 범용 기계·공정설비, 자동차 하네스·모듈 중심의 EU 공급망형 생산 유지 중
- 2025년 기준, 플로브디프·야스노그라드·스몰랸 지역을 중심으로 전장 하네스·전자제어모듈 분야 신규 투자 8건 승인
- 신규 연립정부는 'Automotive Bulgaria 2030' 로드맵에 따라 친환경차 부품·배터리 모듈·AI 제어 시스템을 제조 유망 분야로 지정

- 에너지(원전·재생·저장)

- 코즐루두이 원전 7·8호기(총 2,300MW, AP1000) 추진이 2025년에 금융·사업 구조 측면에서 구체화(Citi Bank 금융조달 파트너 지정 완료)
- 불가리아 Lovech 지역 EU 국가 내 최대 단일 BESS(0.5GWh) 시설 구축 완료('25년 5월)
- 불가리아 남동부 Tenevo 지역 태양광(238MW) 시설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
- 기존 댐 활용 소수력 외, 불가리아 남부지역 Batak과 Dospat 댐 신규 양수발전(800MW 규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
- 남동부 유럽 수소 회랑 프로젝트(SEEHyC) 2029년 가동 및 운영을 목표로 유럽 7개국(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참여

※ SEEHyC 프로젝트 개요

- 남동 유럽을 관통하는 총 연장 약 3,132km의 수소 파이프라인 회랑
- 사업비 약 48억~68억 유로, 목표 가동 시점 2029년
- 그리스 남부(수소 생산 잠재지역)에서 시작해 불가리아를 거쳐 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등을 연결한 뒤 독일 중남부와 중앙 유럽 도달
- 기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일부 전환 병행 신설 예정



• ICT·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서비스

- 불가리아 ICT·소프트웨어 수익은 약 6억 유로('23년, 소프트웨어 산업 단일 기준)로 성장세 지속, '25년 ICT 시장 규모 약 85억 달러 규모 추정
 - 5G·클라우드 전환과 인력풀 강점으로 오프쇼어 개발·BPO* 비중 높음
-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 클라우드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 수행

• 농식품(해바라기·곡물·가공)

- 2024년 해바라기 생산 160만 9,000톤(전년 -9%), 평균 수확 1,732kg/ha. 2025년 2분기 농산물 생산자물가 전년 대비 +15.6%(곡물 +26.7%) → 곡물·유지종자 수급의 가격 변동성 확대가 지속

• 방위 산업(탄약·화약·장비)

- 방위비 증액 그리고 이에 따른 방위 산업 활성화에 따라 불가리아 방위 산업 역시 관련 프로젝트와 대내외 협력 사례 증가에 따라 산업 내 비중 확대
- 2025년 독일 라인메탈이 불가리아 국영 VMZ-소프트과 합작으로 화약·155mm 탄약 공장 설립 합의(14개월 내 가동 목표, 연 10만 발 규모). EU SAFE 메커니즘 금융을 활용, 고속련 고용 창출 기대

최근 불가리아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HS	산업	비중
85	전기장비산업	4,970	85	전기장비산업	4,765	85	전기장비산업	2,736
84	일반기계산업	3,576	74	비철금속산업	4,288	84	일반기계산업	1,933
27	광물연료산업	3,507	84	일반기계산업	3,385	74	비철금속산업	1,917
74	비철금속산업	3,397	27	광물연료산업	3,384	27	광물연료산업	1,779
10	곡물산업	2,121	93	방위산업	2,557	93	방위산업	1,299

자료: 한국무역협회

라. 투자

□ 외국인투자 및 해외직접투자 동향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2~'23년에 급증, '24년 일시적 둔화세 전환
 - FDI 유입액은 '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3년에 46억 유로로 정점 기록
 - '22~'23년 투자 유입 증가는 EU 구조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및 제조업 리쇼어링에 따른 산업설비·부동산 중심 투자 확대로 분석
 - '24년에는 28억 유로(-39%)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19년, 16억 유로) 대비 두 배 이상 수준을 유지
 - 반면 '24년의 감소세는 유럽 경기 둔화, 고금리 지속, 에너지비용 불확실성 등 대외 요인에 기인

'20~'24년 불가리아 주요 FDI 현황

분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단위: 억 유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27.6	14.4	41.3	46.3	28.1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2.1	3.2	5.5	6.4	7.7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

'24년 불가리아 FDI 주요 유입국

순위	국가명	투자액	(단위: 백만 유로)
1	벨기에	583.6	
2	오스트리아	563.0	
3	그리스	418.2	
4	네덜란드	367.9	
5	이탈리아	338.5	
6	헝가리	282.1	
7	바하마	275.6	
8	독일	235.7	
9	몰타	208.0	
10	프랑스	197.0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

- 불가리아의 해외 직접투자는 '20년 이후 점진적 확대세로 전환
 - 불가리아 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202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5억 유로 수준유지, '24년에는 7억 7,000만 유로로 증가
 - '25년 주요 투자 대상국은 루마니아·세르비아·그리스 등 발칸 주변국, 그리고 독일·체코 등 생산·물류 네트워크 중심국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불가리아 투자청은 투자 유망한 산업을 선정, 적극적인 투자 유치 진흥 추진
 - EU 공급망 다변화, 저비용 고속력 노동력, 지정학적 입지(발칸-유럽 중간지대)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빠르게 FDI 유치 확대 중

'25년 불가리아 투자 유치 중점 분야

번호	투자유치 중점 분야	비고
1	자동차 산업	EU 국가 차량의 약 80% 불가리아 제조 차량 센서 사용
2	전자기기 산업	GDP의 약 5.7% 전자기기 산업 차지, 5만 6,000명 이상 전문종사자 보유
3	건강·생명과학 산업	광천수 유출량 기준 세계 2위 등을 배경으로 건강·웰니스·생명과학 관련 산업 확장 여건이 마련
4	IT·BPO 산업	수출액 약 32억 유로 규모, IT 아웃소싱 및 백오피스 서비스 등의 산업 진출 가능성 다대
5	로봇·기계공학	61개 이상의 로봇 동호회 보유, 로봇·메카트로닉스 산업 생태계 형성
6	제조업	최근 제조업 성장률이 약 20.2%기록, 전반적인 제조 업그레이드·외국인투자 확대가 진행 중

자료: 불가리아 투자진흥청

-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세제감면(최대 50%), 설비투자 보조금(최대 25%), 신속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역에 따라 상이)
- 단, 향후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EU 통합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이 투자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제기 중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베트남)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24년 기준 일본은 약 8억 2,900만 유로, 중국이 약 75억 6,500만 유로를 투자
 - 일본의 야자키(Yazaki, 케이블, 자동차 부품업), 타케다(Takeda, 의약품), 세가(Sega, 게임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불가리아에 진출
 - 중국은 농업과 제조업에 투자, 제트에스(ZS)가 플로브디프에 자동차 부품 공장을 설립, 샤오미(Xiaomi), 하이얼(Haier) 등 전자기기 기업도 진출

'22~'24년 불가리아 주요 경쟁국 FDI 유입액 현황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	-16.3	0.2	0.6
중국	8.8	16.1	26.7
일본	-2.8	11.7	-28.1
베트남	1.4	1.7	-4.2

주:マイ너스의 경우 신규 유입보다 회수·배당·대출상환 등 유출이 더 크다는 의미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

□ 한국의 对불가리아 투자 진출

- 2025년 기준 한국의 对불가리아 누적 투자액은 약 2억 3,273만 달러

한국의 对불가리아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Q.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 금액	2	0.0%	1	-50.0%	0	-100.0%	0	0.0%
신규 법인 설립 건수	3	0.0%	1	-66.7%	0	-100.0%	1	0.0%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 对불가리아 투자는 태양광 발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투자가 전체 누적 투자액의 63.5%를 차지
- 2023년 한국 IT 기업이 지분 투자를 통해 신규 진출, 투자액 100만 달러 증가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남동발전-SDN이 있음

한국의 對불가리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분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
제조업	19,292	77	-	-	-	19,369
숙박·음식업	52,204	-	-	-	-	52,204
도매·소매업	2,649	1	-	-	-	2,650
부동산업	1,500	-	-	-	-	1,500
건설업	3	-	-	-	6	9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145,821	1,967	-	-	-	147,788
정보통신업	8,089	-	-	-	-	8,08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	-	1,000	-	-	1,000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125	-	-	-	-	125
합계	229,683	2,045	1,000	-	6	232,73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5.10월 기준)

□ 불가리아의 對韓 투자 현황

- 2025년 불가리아의 對한국 누적 투자액은 159만 달러
 - 불가리아의 투자는 제조업(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총 누적 투자액의 54.6%를 차지
 -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카오스그룹(컴퓨터그래픽), 피앤에이치(태양광) 등이 있음

불가리아의 對한국 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분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계
제조업(전기·전자)	870	-	-	-	-	870
도·소매(유통)	191	82	-	-	73	346
숙박·음식점	154	-	-	-	-	154
정보통신	95	-	-	-	-	95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50	-	-	-	-	50
금융·보험	-	-		78		78
합계	1,360	82	-	78	-	1,593

자료: 산업통상부 외국인투자통계(2025.10월 기준)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 1997년 현대중공업의 국영 변압기 제조사 인수, 2011년 남동발전과 SDN의 태양광 발전 분야 협력 투자 진출 이후 실질적인 투자 진출은 소수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자동차 부품 기업 화승코퍼레이션, 차량용 고무부품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화승코퍼레이션
- (성공 사례)
 - 2022년 KOTRA 소피아무역관 지원으로 불가리아에 투자 진출 법인을 설립
- (시사점) 불가리아 파트너사에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EU 완성차 기업에 납품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태양광 발전 기업 남동발전·SDN, 태양광 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

- (기업 정보) 남동발전, 에스디엔(SDN) 합작 투자
- (성공 사례) : 공공-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여 산업은행의 융자를 조달하는 등 해외 투자 진출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한 사례
- (시사점)
 - 불가리아 전력시장 자율화(Liberalization) 등 정책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불가리아 대통령 방한 시 불가리아 태양광 관련 현안 상정 등 고위급·발주처 대상 지속 어필 중요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비EU 국가 투자자 대상의 FDI 사전심사 강화
 - 불가리아는 2025년 3월, 'Investment Promotion Act' 개정을 통해 EU FDI Screening Regulation 투자 심사제도를 완전 이행 시작
 - EU 역외 투자자가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전략산업(에너지·통신·국방·핵심 인프라 등)에 투자할 경우, 경제산업부(MEI)와 국가안보위원회(COUNCIL ON SECURITY)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는 투자자의 실질 지배구조·자금 출처·기술이전 위험성 등을 검토, 승인까지 최대 90영업일이 소요
 - 심사대상은 비EU 국가로 범위가 넓으나, 실질적으로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EU 정책 기조를 반영한 심사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
 - 한국의 경우, 미국·영국·일본 등과 함께 저위험국가로 지정이 되어, 해당 심사제도의 일부 조건이 완화되거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완전 면제는 아니고 조건부 예외가 적용됨에 따라 투자 진출 시 유념 필요

- 불가리아 국내 인증제도의 EU 기준 정합화로 인한 취득 절차 복잡화
 - 불가리아는 EU 단일시장 규정에 따라 제품·공정·환경 관련 인증체계를 지속 정비 중
 - 2024~2025년에는 CE, CPNP(화장품 통합관리), E-Mark(자동차 부품) 등 주요 인증제도의 현지 적용규정·검사 기준이 강화
- 여전히 느린 행정 처리 속도와 시스템 미비
 - 부분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 디지털 행정 도입이 늦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불가리아어로 작성해야 할 부분도 많아 복잡하며 서류 검토에도 보수적
 -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화 계좌 개설 시 은행은 EU 자금세탁 방지법(AML)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에 따라 복잡하고 엄격한 서류 제출이 의무, 지속적인 보완을 요청하는 등 깐깐한 검토를 진행

2. 유망 산업

가. 에너지 산업

□ 개요

- 현지 에너지 산업 구조 및 규모
 - 불가리아의 전력 산업은 국영 지주회사 Bulgarian Energy Holding(BEH)을 중심으로 발전·송전·가스·석탄·원자력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
 - 전력시장의 총 발전량은 2024년 기준 약 47.2TWh, GDP의 약 6.5%(에너지 산업 부가가치 기준) 수준 차지
 - 전체 발전 중 약 53%가 화석연료 기반, 47%가 비화석원(원자력·재생 포함)으로 구성

'24년 불가리아 에너지 발전원별 비중

구분	발전량 (GWh)	비중 (%)	증감 ('23년 대비)	주요 특징
원자력	17,900	38.0	+2.1	Kozloduy NPP 5·6호기 안정 가동, 신규 7·8호기 추진 중
석탄(갈탄·유연탄)	13,600	29.0	-8.3	Maritsa East 복합발전단지 축소, EU 탄소정책 영향
천연가스	2,500	5.3	+4.0	복합·열병합 중심, Burgas·Varna 지역 중심
수력	4,900	10.4	-1.2	NEK 수력자산 중심, 계절 편차 큼
태양광	4,100	8.7	+22.0	2025년 신규 허가 1.1GW 포함, 역대 최대
풍력	2,200	4.6	+10.5	해안·산악지대 중심 소형 발전단지 확충
바이오·기타	1,000	4.0	+6.0	바이오매스·폐기물 연료 발전 점진 확대
합계	46,200	100.0	-	-

자료: Eurostat, BEH Annual Report

• 최근 수출입 동향

- 불가리아는 여전히 전력 순수출국(2024년 순수출 5.8TWh)으로, 그리스·루마니아·세르비아로의 전력 수출이 전체의 11%를 차지
- 변압기·절연체·스위치기어(HS85), 발전기(HS84), 케이블(HS85) 등 발전설비 노후화와 EU 전력 연계망 동시 강화를 위해 발전·송전 기자재 수입이 2024년 18% 증가
- 특히 태양광 인버터, ESS(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PCS 장비 수입이 2023년 대비 +34% 성장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공공 측의 경우 원전 신설·계통 확충을 주도하고, 민간 측에서는 기존 석탄자산의 전환, 재생·저장 프로젝트 확대가 병행되는 이원 구조

불가리아 에너지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Kozloduy NPP· New Bui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운영 국영 기업, 코즐로두이 원전 5·6호기 운영은 Kozloduy NPP, 신규 원전 7·8호기 발주 및 운영은 New Build가 담당 • 기존 원전 5·6호기의 운전 연장과 7·8호기 건설 사업을 국가 전략과제로 추진
AES Bulg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화력발전소 운영 국영 기업 • Maritsa East 석탄발전 환경 설비 개선 및 복합가스 전환 프로젝트 추진 중
ESO E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송배전망 운영 및 관리 국영 기업 • 400kV 송전망 확충(Varna–Burgas–Stara Zagora), 전력망 디지털화 계획 추진 중 • 불가리아 도시 내 EV 충전소 확충 프로젝트 검토
NEK EA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양수 포함 31개 수력발전소, 총 2,737MW 보유·운영 국가 전력회사 • Batak, Dospat 댐 양수발전(700~800MW)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중
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SS 설비·제조 불가리아 민간 기업 • 배터리 셀(중국 수입) 이외 저장시스템 등 100% 자체 생산 BESS 제조사 • 소피아 시내 제2 공장 신규 건설 추진

자료: KOTRA 소피아무역관 자체 조사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원전 생태계) 냉각수 펌프, 계측·제어(MMS/AMS), 방사선 계측, 케이블·배관, 안전등급 밸브·실링 등 보조·균열부품
- (재생에너지 저장 통합 솔루션) 태양광(지상·산단형)과 연계한 BESS(PCS·BMS·EMS), 변전소 연계형 ESS, 주파수조정(FCR)·피크저감용 솔루션
- (그리드 하드웨어) 고효율 변압기·개폐장치·차단기, 배전 자동화(피더 원격제어, 재폐로), HV 케이블·가공선 자재
- (디지털 제어) SCADA·DMS·OMS, 데이터 기반 예지보전, DER(분산자원) 통합 관제, 사이버보안
- (수소·가스 전환) 전해조(BOP 포함), 압축기·밸브, 메탄화, 저장 탱크, 산업열(보일러) 전기화·수소 혼입 개조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NECP 2025와 유럽 녹색 전환 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확대·계통 보강·저장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가능성 대대
 - 원전 신설 추진은 중장기 전력 안정과 산업전력 가격 안정화에 기여
 - 송배전망 현대화, 태양광, BESS, 수소 프로젝트 등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증가 예정

나. 자동차 부품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전장 하네스·센서·모듈 조립’ 중심의 EU 공급망형 산업
 - 완성차 생산은 없지만, 유럽 OEM 공급망의 핵심 부품 조립, 전자·기계 가공 기지로의 기능
 - 2024년 기준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생산 및 수출액은 약 62억 유로, GDP의 약 7.5%,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14% 차지
 - 자동차 관련 종사자는 약 8만 9,000명(제조업 고용의 10% 수준)으로, 불가리아 최대 고용 산업 중 하나
- 최근 수출입 동향
 - 주요 품목은 와이어 하네스(케이블·커넥터), 센서·모듈형 전자부품, 정밀기계·플라스틱 부품, 자동차용 전장·PCB 등, 생산의 95% 이상이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EU OEM 및 1차 협력사로 수출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는 주로 플로브디프(Plovdiv), 루세(Ruse), 바르나(Varna), 부르가스(Burgas) 등 도시 주변에 형성
 - 자동차 부품 산업은 현재 제조업 고용의 10% 이상, 수출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산업으로 성장

불가리아 차량용 부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YAZAKI Bulg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진출 하네스 납품 일본계 기업, 3개 공장 가동 및 총 5,000명 이상을 고용 중 • (품목) 전기와이어, 하네스, 전기차량 부품 • (주요 고객사) 다임러, 르노, 포드
Sensata Tech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용 센서 및 반도체 설계·조립 분야 핵심 기업, 2024년 플로브디프 공장의 생산능력 25% 확장, 차량 온도·압력 센서 신공정 라인을 추가 구축 • (품목) 차량용 센서 • (주요 고객사) BMW, 아우디, 벤츠 등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Sumitomo Electric Bordnet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용 전기 와이어 생산 일본계 기업 (품목) 전기 와이어 (주요 고객사) BMW, 아우디, 벤츠 등
Hwaseung Automotive Bulg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진출, 한국 자동차용 고무 부품 제조사 (품목) 자동차용 고무 부품
Hanon System Plo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그나(Magna) 일부 사업 부문, '마그나파워트레인플로브디프(Magna Powertrain Plovdiv EOOD)' 인수하여 불가리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24년 현지 공장 자동화 라인을 확충, 전동차용 열관리시스템 시험생산 개시 (품목) 자동차 공조 장치 (주요 고객사) 현대, 기아
Monb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리아를 대표 배터리 제조사, '25년 기준 유럽 내 재활용 납축전지 시장점유율 약 5%를 기록하며 전기차용 리튬배터리 사업으로 다각화 중 (품목) 자동차 배터리류 (주요 고객사) 다임러, BMW, 아우디, 벤츠 등
Teklas Bulg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르키예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불가리아 브랏차(Vratsa) 지역 1,200만 유로를 투자 및 진출 후 공조 장치를 생산 (품목) 자동차 공조장치 (주요 고객사) 폭스바겐, BMW, 아우디, 벤츠 등
Melex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기에 차량용 시스템 부품 전문 제조사 (품목) 차량용 IC칩, 반도체, 회로판 (주요 고객사) 운전자 보조장치 제조사, 파워트레인 제조사
ETEM Bulg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경량화 추세에 맞춰 알루미늄 차체 부품 생산을 확대, '25년 EU Innovation Fund 지원으로 알루미늄 압출 및 재활용 라인 현대화 프로젝트 착수 (품목) 차량용 알루미늄 부품 (주요 고객사) 폭스바겐, BMW, 아우디, 벤츠 등
Bosch Bulg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용 ECU(전자제어장치)와 연료계통 부품을 생산, '25년 R&D 인력 150명 증원 및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용 전자제어기 개발센터 설립을 발표 (품목) 연료계 부품, 전기부품 (주요 고객사) 폭스바겐, BMW, 아우디, 벤츠 등

자료: KOTRA 소피아무역관 자체 조사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전장 하네스) 전동화용 HV 하네스 수요 확대에 따른 하네스 고온·고전압 대응, 경량화 소재, 커넥터 방수·차폐 기술
 - (센서·모듈) 압력·온도·전류 센서, 배터리 BMS 연계 센싱, 인버터·컨버터용 전력전자 부품
 - (공정·자동화) 하네스 조립 자동화 설비, 비전검사, 협동로봇, ESD·정밀조립 라인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

- 노동집약 공정의 자동화 전환과 전자화(센서·전력·제어)를 축으로 품질·생산성 중심 재편이 진행될 전망
 - EU 전동화 추세(HEV·BEV 비중 상승)와 OEM의 비용 안정성·근접 조달 수요로, 전장·센서·정밀 가공의 기술형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리
 - 단, 인력 유출과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일부 기업(Leoni, 독일 케이블 하네스 제조사) 공장을 폐쇄하는 등 구인 리스크 존재

다. ICT·전자기기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과거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시절 불가리아는 1980년대 소련 주도의 경제블록인 '경제 상호 원조 회의(COMECON)'에서 ICT 기술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 동유럽의 실리콘 밸리로 불릴 만큼 ICT와 전자기기 기초기술이 발달되어 있음
 - '24년 기준 ICT와 전자기기 산업이 GDP의 약 8.4% 차지, 산업 구조 내 비중 지속 상승 중
 - ICT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45%), 통신 인프라(30%), 전자기기 제조(25%)로 구성
 - 전자기기 제조는 가전·통신장비·산업용 제어기기를 포함, '24년 생산액은 약 65억 유로 규모
 - 정부는 EU RRF(Recovery & Resilience Facility) 자금 7억 2,000만 유로를 디지털 제조, 스마트 공장,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입
 - 통신 인프라는 '25년 기준 5G 보급률 73%, FTTH 보급률 62%로 EU 평균을 상회
 - IT·전자공학 전공 인력 약 12만 명, 연간 1만 명 신규 배출로 인건비 경쟁력(서유럽 대비 약 40% 저렴) 유지

• 최근 수출입 동향

- 2024년 불가리아의 전자기기(HS85) 수출액은 약 51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 소폭 감소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27%), 루마니아(10%), 이탈리아(9%), 프랑스(6%)로 EU 역내 공급망 중심 구조 유지
- 수입의 경우 2024년 기준 59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감소,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33%), 독일(20%), 이탈리아(9%) 순이며, 통신장비·가전부품·전력제어 모듈 등 중간재 중심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확장과 토종 스타트업의 스마트 가전 혁신 동시 진행

불가리아 ICT·전자기기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Schneider Electric Bulg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로브디프 산업단지와 전력분배기기 및 스마트빌딩 자동화 솔루션 생산 프랑스계 기업 • 2025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도입 및 IoT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Festo Production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자고라(Stara Zagora) 공장 내 산업 자동화 제어기기 및 공압장치 생산 독일 기업 • 2024년 EU 혁신기금 3,200만 유로 승인, 로봇설비 라인 확충
Liebherr Bulg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로브디프·라코보 지역 냉장·냉동 가전 생산 독일계 기업 • 2025년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도입 및 IoT 기반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WA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상하수도 벨브와 배관 부속품 제조사 • 스마트 누수 탐지 IoT 등, 불가리아의 높은 상하수도 누수율 해결을 위한 관련 IoT 기술 도입 방향 검토 중
Chao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건축 및 인테리어 다목적용 3D 렌더링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 2023년 한국에 자사 설치 및 진출
Allterco Robo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IoT(가전 자동화, 위치추적 등) 생산 제조사 • 스마트홈 기기(Shelly 시리즈)로 글로벌 진출 확대 • 2025년 Wi-Fi 6 기반 Shelly Pro 출시, EU 스마트 가전 시장 점유율 2.4% 달성

자료: KOTRA 소피아무역관 자체 조사

- 우리 기업 협업 수요
 - (스마트가전·IoT) 센서·무선통신 모듈,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등
 - (산업자동화·스마트팩토리 장비) 센서·모터제어·PLC 부품, 모션컨트롤러·공정자동화 소프트웨어·HMI 패널 등
 - (전력전자·에너지 관리) 친환경·고효율 인버터, UPS, 전력분배장치 등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2026년까지 ICT·전자기기 산업은 연평균 +7.8% 성장 예상
 - 단순 조립형 전자기기에서 자동화·정밀제어·산업용 솔루션 중심으로 고급화 진행 중
 - 서유럽 제조비용 상승으로 불가리아가 자동화기기 및 전력전자 부품 조립·테스트 거점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저렴한 개발비를 통해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유럽 기업들이 많음
 - 전자·자동화 분야 STEM 교육기반이 활발, Technical University of Sofia, Technical University of Varna 등에서 전기공학·자동화 전공 학생 증가 등, 국가 R&D(연구개발)와 인력 육성 확대 중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불가리아는 EU 단일시장 회원국(2007년 가입)으로, 자국의 모든 무역협정은 EU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에 따라 운영

* 한국-EU FTA 2011년 7월 발효, 공산품 100% 관세 철폐, 원산지 누적규정 적용

- 한국-EU FTA 활용, 한국산 핵심 부품을 불가리아에서 조립·가공 후 EU 역내 완제품 및 중간재 무관세 수출 가능
 - 불가리아는 발칸·중동·EU 간 삼각 교역 허브로서 기능, 특히 EU 역내 무관세 공급망 기반을 활용한 중간재 가공 및 재수출 모델이 활발히 운용 중
 - 자동차 부품, 전력전자, 기계설비, 전자기기 산업에서 '한국 부품 + 불가리아 조립 + EU 판매' 역내 가공무역형 진출 모델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 다대
- '24년 불가리아 경제산업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무역·투자촉진 MOU 체결
 - 기업 및 개인의 공동 프로젝트 탐색, 전문기관과 기업 간 협력, 전문가·기술자·학생·연수생 교환, 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와 전시회에 기업 참여 등 양국 간 경제 교류 확대 기대
 - 디지털·청정에너지·산업 인력 양성 분야 중심의 한국-불가리아 전략 협력사업 추진 여지가 확대

□ (G2G)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發 안보위협에 따른 군 현대화 프로젝트 협업 유망

- '25년 7월 29일까지 SAFE를 통해 최대 30억 유로(최소 27억 4,500만 유로~최대 30억 6,800만 유로)까지 방위 관련 차관을 신청

※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 개요 : EU가 방위 및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주요 재정지원 프로그램
- 관리기관 : EU 집행위원회(EC) 산하 유럽방위기금(EDF)
- 불가리아 신청 현황 : 최소 1,270억 유로('25년 7월 30일 기준)*
 - * 신청국(규모, 비율) : 폴란드(450억 유로, 35%), 프랑스(200억 유로, 16%) 불가리아(30억 유로, 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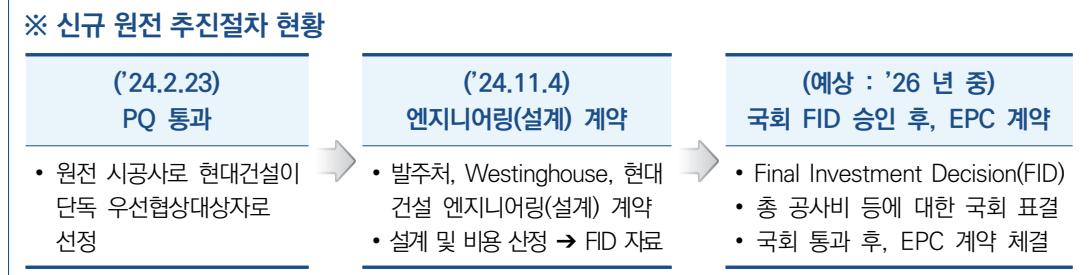
- 다목적 헬기, 자주포, 전투정, 디젤 잠수함 등 한국과의 협업 가능성 보유
- 불가리아 정부는 단순 수출 또는 납품 계약보다는 자국 내 협업 생산 등을 선호

나. 프로젝트 : 신규 원전 및 방산 분야

□ 유망 프로젝트

- (에너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7·8호기 EPC 계약 예상(2026년)
 - 2024년 코즐로두이(Kozloduy) 신규 원전 2기 설계 및 시공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르면 2026년 웨스팅하우스-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EPC 본 계약 체결 예상
 - 한국 기업의 EPC 계약 시, 한국 서플라이 체인의 참여 가능성 다대

※ 신규 원전 추진절차 현황



- (방산) 국방 13대 ‘군 현대화 프로젝트’
 - 2032년까지 서방 무기체계 도입을 통한 13대 ‘군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계획 공표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합군과 효율적인 합동 작전을 위해 육군은 다연장로켓(MLRS), 155mm 자주포, 전술 교신 시스템 등 도입 준비, 구(舊) 소련제 무기체계를 대체 예정
 - 흑해 연안의 기뢰 도발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해군은 연안 대함 체계 구축, 미사일 전투정, 다목적 디젤 잠수함 등 다양한 해양 무기체계 조달 추진

13대 핵심 군 현대화 프로젝트(2023년 공표)

연번	분야	조달·공급상태
1	기동장갑차	(확정) Stryker 장갑차 183대 FMS 계약
2	3D 레이더 시스템	(확정) Thales Ground Master 400, GM200 7대 계약
3	전투기 무장 지원	(확정) F-16 Block 70 16대 계약, '25~'27년 인도
4	전차 현대화	(확정) T-72 전차 Elbit Systems 현대화 패키지 계약
5	순찰함	(확정) 코르벳·마인헌터급 설계 및 건조 계약, '25~'26년 인도
6	중·장거리 지대공	(진행 중) ESSI 참여, 독일 협상 진행 중
7	단거리 방공 시스템	(진행 중) 9K33 Osa 대체용 신규 도입 준비
8	이동성 다연장로켓	(진행 중) HIMARS, PULS, K239, 천무 비교검토 중
9	자주포	(진행 중) CAESAR, K9 등 비교검토 중
10	대함 미사일	(진행 중) RBS-15 MK3 우선 검토, NSM·미국 협상 중

연번	분야	조달·공급상태
11	다목적 헬리콥터	(진행 중) UH-60M, AW149, KUH 등 비교검토 중
12	UAV	(진행 중) SCANEAGLE, AQUILA 운용 중, 대형급 신규 도입 추진
13	지휘통제·C4ISR(통신)	(진행 중) NATO·EU 표준 통합 업 준비 단계

자료: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그 외 예정된 2026년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발주처명	규모	프로젝트 단계	발주 일정
파스트 다뉴브2 불가리아~루마니아 국경 다뉴브강 현대화 공사	불가리아 교통부	2억 3,000만 유로	다뉴브강 하류 관리청 간 협정 체결	미정
불가리아 소피아 국제공항 2 터미널 개선, 3 터미널 신축공사	소피아 공항	2억 2,500만 유로	설계 진행 중	본 공사 미정 ('31년 완공 목표 예정)

자료: KOTRA 소피아무역관 자체조사

□ 현지 프로젝트 진출 시 참고사항

- 2021~2027 운용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 OP) 사전 분석
 - OP란 EU 기금 집행에 관한 기금 수혜국의 마스터플랜으로 OP 내에는 프로젝트 분야, 우선순위, 주요 프로젝트, 시행 기관 등이 포함
 - 따라서, 2021~2027년 불가리아의 OP 사전 분석을 통해 조달 절차 전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 등 프로젝트 주요 정보에 대한 선제 발굴 및 사전 준비가 가능
- EU 기금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파이낸싱이 포함된 진출 모델 개발
 - 수원국에 자체 예산 매칭을 요구하는 EU 기금의 특성상 재정 상황이 어려운 불가리아 등 동유럽국은 파이낸싱 방안을 포함한 입찰 방식을 선호
 - 따라서, 기존 도급형 방식보다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등의 투자 개발 사업 방식 입찰을 통한 현지 수주 경쟁력 확보 필요
- 공신력 있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 EU 기금 프로젝트는 유럽 기술 사양, 현지어 입찰서류, EU 프로젝트 레퍼런스 등 역외국의 프로젝트 입찰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이 높아 공신력 있는 현지 협력 기업 발굴 및 컨소시엄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 제고 필요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45 |
| 2. 진출전략 | 47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장기적 정치 불안 이후 신규 연립정부 출범(2025년 1월)
- EU 기금 활용 법규 개정 지연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강화(한국 화이트리스트)
- 정치 불안정 속, 2025년 1월 생겐 구역 완전 가입 및 2026년 1월 유로존 가입 유력 등 EU 통합 가속화
- 일부 정당 내 권력 분쟁 존재,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있으며 투표율도 지속 하락 중



경제(Economic)

- 2025년 연평균 GDP 성장을 2.5% 예상(EIU)
-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EU 주요국 대비 높은 편
- EU 기금 유입이 지속될 예정이며 정치적 위협이 해소되면 유입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형 프로젝트 기회 포착 가능
-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 증가로 자동차 부품, 화학, 정보통신 산업 등 혁신 산업 지속 확대
- ECB 금리 피벗으로 유럽 경제 회복 기대



사회문화(Social)

-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
- 서유럽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출산율은 반등하여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빈부격차와 교육격차로 인한 수직적 사회계층 구조
-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좋은 브랜드를 선호



기술(Technological)

- 수소, 스마트 그리드, BESS 등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스타라 자고라 지역 수소 허브 구축 시작 등 실질적 진행 단계
- 5G 구축, AI 기술 등 ICT 투자 촉진으로 디지털 전환 진행
- 혁신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구축
- 수도와 지방 도시 간 정보격차가 심하고 중소기업의 IT기술 활용률은 EU 주요국 대비 낮은 편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EU 주변국에서 방산, 원전 프로젝트 등 다수 진행한국산 차량이 현지에서 경찰차, 택시 등으로 운행되는 등 인지도 증가 추세확실한 납기 준수, 품질관리 능력 보유소비재의 경우 자연 친화적 원료로 건강한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EU·CBAM이나 C3SD등 신규 규제 대비 미흡중국산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대불충분한 노동력으로 현지 고용에 어려움시장 규모로 인해 최소 주문량이 적어 대기업의 대응력 부족EU 기업 대비 프로젝트 대응능력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1~2027 EU 기금 유입 프로젝트 다수203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낮은 인건비, 법인세로 외국 투자 기업 클러스터 보유IT 우수 인력 보유, 유럽 1위 IT 아웃소싱 기지유럽, 아시아 사이에 위치, 유럽 진출 교두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 상황에 민감한 편경제적으로 높은 주요국 의존으로 경기 민감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정책 지연 빈번에너지 체계 구식화로로 인한 효율성 저하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한국의 문화적 강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가리아의 전략적 위치와 EU 기회 활용

유럽 소비재 진출을 위한 전략 거점 확보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한국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불가리아가 직면한 안보 에너지 경제적 위협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

미래형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사업 선점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EU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

선도 의료기기 기업과 병원 현대화 사업 전략적 협력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불가리아의 내부적 약점과 외부적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

방산, 고속도로 건설, 기관차 도입 등 대형 프로젝트 대상 정밀 타격형 입찰 전략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한류 문화 융합 소비재

에너지 프로젝트

교통·통신망 등 인프라 사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한류 확산에 따른 문화적 영향력을 적극 활용, 프리미엄 브랜드
- 가격에 민감한 시장 특성 고려, 합리적인 가격과 MOQ(최소 주문 수량) 설정 필요
- 한국문화 확산에 따른 'K프랜차이즈' 서비스 진출 추진

- 불가리아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국내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경험을 발판 삼아, 유사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 확장 모색
- 신재생에너지 분야(태양광 발전) 진출 역사 등 진출 이력 어필
- 노후화된 송·변전 체계 개선, 스마트 그리드 등 혁신 기술 수요 대응

- EU 기금(경제회복기금, 다년간기금) 수혜 분야 집중 분석
- 철도, 5G 통신, 토목, 방산 등 주요 분야 발주처와 네트워크 구축
- 기술력 및 국내외 수주 경험 기반, 현지 파트너 기업과 입찰 참여

전략 ① (K-Goods) 한류 문화와 융합한 소비재 온·오프 통합 마케팅



전략 수립 배경

- K-문화 확산으로 한국과 한국 소비재에 관한 관심 증대
 - * K-팝, 드라마, 게임 등 한류 문화 확산세 지속
 - * 현지 5개 대학에 한국학과 전공 혹은 한국어 강좌 등 약 1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정 운영
- 한국 소비재 매장 다수 오픈, 한국산 제품 취급 바이어 증가 추세
 - * 불가리아 소피아 시내에 한국 화장품 전용 매장 5개 오픈, 한국 식료품점 및 다수 한식당 운영 중

□ 현지 동향

-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이 지속되며 비필수 소비지출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
 - 1인당 소비지출은 2020년 2,584유로에서 2024년 4,840유로로 87.3% 성장
 - 미용 등 비필수 소비지출 역시 2020년 28.8%에서 2023년 31.3%로 2.5% 증가

'20~'24년 불가리아 소비자의 1인당 소비지출, 비필수 소비지출 추이

(단위: 유로,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당 소비지출	2,584	2,959	3,563	4,211	4,840
비필수 소비지출 비율	28.8	29.1	29.9	31.5	31.3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KOTRA 소피아무역관 편집)

- MZ(90년대생 이후)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
 - 2024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약 23억 유로로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했으며 인터넷 사용자 중 53%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2024년 기준 전체 광고시장의 37.5%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성장했으며, SNS나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젊은 세대 증가가 이유
- * 불가리아 채널별 소비층 : 유튜브(10~40대), 페이스북(30~40대 남성), 인스타그램(20~30대 여성)

□ 유망 품목

- 스킨케어·미용기기 등 뷰티 제품, 라면·음료·소스 등 간편 식품 유망
- 한국 화장품은 '천연성분을 보유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지도 증가, 수입 바이어도 늘어나며 수입 브랜드와 제품군이 다양해지는 추세

□ 진출전략

- 온오프라인 마케팅, 유연한 가격 전략 및 프랜차이즈 서비스 수출
 - 온라인으로 제품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이 중요하며 가격에 민감해 합리적 가격 설정과 최소 주문량 설정이 핵심
 - 한국 문화 확산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서비스 진출도 유망

전략 ② (K-Energy) 원전, RES, 송·변전, 스마트 그리드 분야 수요 대응



전략 수립 배경

- 송·변전 체계의 노후화로 전력의 효율성이 낮아 전반적인 전력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효율화의 일환으로 스마트 그리드(BESS 배터리 기술 등), SMR(소형모듈원전) 등 혁신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
- 수소 허브 구축에 따른 수소 연결 배관, 수소 발전기 등 관련 장비에 대한 인콰이어리 발생

□ 현지 동향

- 송·변전 체계 노후화가 심한 편, 전력공급 효율화를 위한 혁신 기술에 관심
 - 공산정권 때 설치한 송·변전 체계는 노후화된 상황, 전력 수요 증감에 따른 적절한 공급 조절이 어렵고 손실률도 높아 효율성이 낮은 편
 - 발칸의 에너지 허브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송·변전 체계 현대화와 스마트 그리드, 해상풍력 등 혁신 기술 활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
- EU의 투자를 받아 수소 허브 구축 진행, 관련 장비와 부품 수입 수요 발생
 - 그리스에서 불가리아까지 250km의 수소 파이프 연결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프로젝트 관련하여 KOTRA 소피아무역관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음('24년 9월)

□ 유망 품목

- 발전기, 변압기, 송·변전 기기,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RES(재생에너지 저장) 관련 장비, 파이프 등 유망
 -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중전기기(발전기, 변압기, 터빈, 송·변전 기기 등)가 유망, 중동 붐 이후 새로운 유망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
 -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면 이에 필요한 기자재와 기술 수출도 유망한 편
 - 에너지 계획에 명시된 RES, 수소, 스마트 그리드 체계, ESS 배터리 등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한국산 혁신 에너지 기술의 불가리아 진출 기대

□ 진출전략

- 유망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
 - 현지 사업 참여를 위한 서류 준비, 행정 절차 등을 불가리아어로 진행되므로 유망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여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

전략 ③**(K-Infra·Defence) EU 기금 수혜 분야(교통/통신, 친환경)
프로젝트 집중 수주와 군·경찰 현대화 프로젝트 진출 기회****전략 수립 배경**

- EU 기금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 2021~2027 기간 EU는 불가리아 내 110억 유로의 기금을 조정 배정(EU 집행위원회)
- NATO와 협동작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 현대화 프로젝트도 추진

□ 현지 동향

- 2023년부터 경제회복기금(RRF)과 다년도 예산(MMF) 집행이 본격 시작
 - RRF는 배정된 EU 기금의 36%를 차지, 동 기금이 유입되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 기대, 다만 일부 사업은 EU의 법령 개정 요구로 일시 중단
 - * 2021~2027 불가리아에 배정된 EU 기금은 MMF와 NGEU로 구성됨. NGEU는 EU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이 중 RRF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주로 ‘혁신’, ‘교통·통신’, ‘친환경’ 등 EU 집중 투자 분야에 투입
 - 집행 계획에 따르면 혁신(25.8%), 교통·통신(22.5%) 등에 예산이 투입 예정, 고속도로, 철로 복선화, 항만 현대화, 기관차 도입 등 다분야 대형 프로젝트 추진 준비
- ’25년 7월 29일까지 SAFE를 통해 최대 30억 유로(최소 27억 4,500만 유로, 최대 30억 6,800만 유로)까지 방위 관련 차관을 신청
 - EU SAFE 기금 조달 조건(기술이전·NATO 상호운용성·공공조달 등) 적용 시, 자주포, 다목적 헬기, 등의 프로젝트 국내 방산 기업 협업 기회 확대
 - 쟁전 구역 완전 가입에 따라 국경관리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현대화 추진, 드론 무력화, CCTV, 국경 경찰용 화기, 차량, 관제체계 등 업그레이드 예정

□ 유망 분야

- 전동차, 건설기계 등 중장비, 군 현대화 계획에 따른 장비 체계 유망
 - (프로젝트) 토목 프로젝트 참여, 전동차, 건설기계 등 중장비 수출 유망, 해외 공사 사례와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납기 준수 이력 등 어필 중요
 - (방산) 자주포 다목적 헬기, 조종사 시뮬레이터, 드론 무력화 체계, 국경 관제 시스템 등 군·경 현대화에 필요한 무기체계 수요에 대응
 - * 불가리아 국방부는 한국산 무기의 기술력과 주변국 수출 사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높게 평가

□ 진출전략

- 발주처 대상 꾸준한 접촉, 기술력 등 차별화 전략으로 직간접 수주 추진
 - 발주처, 유망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 구축은 기본이고 주로 EU 역내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는바 계약조건 준수, AS 등에서 차별화 전략 필요
 - * 한국 기업은 계약조건(납기, 스펙 등)을 충실히 지키고, 가격도 괜찮다는 평가 다수
 - 최근 EU에서 발표한 '역외 보조금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제출 자료 준비 필요



화장품

- | | |
|-------------|--|
| 선정사유 | • 2024년 불가리아의 對한국 화장품 수입은 971만 달러로 2019~2024년 기간 지속 성장 |
| 시장동향 | •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천연 화장품, 마스크팩, 클렌징, 기능성 화장품과 메이크업 제품도 인기 |
| 경쟁동향 | • 한국은 불가리아의 화장품 수입 5위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프랑스, 스웨덴 등이 주요 수입국임 |
| 진출방안 | • 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CPNP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마케팅 활용 |

라면

- | | |
|-------------|---|
| 선정사유 | • 한류 콘텐츠에 관한 관심 증가로 라면 등 한국산 간편식 수요 확대, 전년 대비 수입액 52% 증가 |
| 시장동향 | • 불가리아 내 한식당과 한국 식료품 취급점 증가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확대 추세 |
| 경쟁동향 | • 한국은 불가리아의 면류 수입 8위로 그리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주요 수입국임 |
| 진출방안 | • 면 제품의 60%가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대형 슈퍼마켓 체인 납품 중인 바이어 발굴이 중요 |

의료기기

- | | |
|-------------|---|
| 선정사유 | • 2028년 EU 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노후 의료기기 교체)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될 것으로 기대 |
| 시장동향 |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불가리아는 의료기기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 경쟁동향 | • 독일, 네덜란드 제품이 시장점유가 높으며 일본 제품과도 경합, 한국산은 진단기기 위주로 시장 형성 |
| 진출방안 | • 의료분야 공공 조달, 대형 병원 파트너 관계 구축을 통한 제품 수출 추진 |

자동차 부품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리아 내 한국산 중고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 기대 |
| 시장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산 자동차의 비율은 EU 역내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으나, 지속 시장 확대 중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리지널 부품이 아닌 중국, 인도산 대체 부품 사용 등 부품 경쟁 다소 발생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도매상을 공략, 낮은 MOQ(최소 주문 수량)로 인한 물류비와 단가 상승에 대처 |

포터블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리아 전기차 수는 2018년과 비교해 10배가 늘어난 1만 대를 기록했으며, 공용 전기차 충전소 보다는 개인 충전을 선호하는 특성상 포터블 전기차 충전기 유망 |
| 시장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에 판매 중인 전기차 충전 케이블의 선택권이 적고, 전용 충전 케이블을 타 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 컨버터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가리아 내 가정용 전기차 플러그 제조업체는 없으며, 대부분 독일 등 전기차 인프라 선진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 특성을 고려, 보급형 전기차 충전컨버터 수출을 통해 시장 선점과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인프라 프로젝트

- | | |
|-------------|--|
| 선정사유 | • EU 기금을 활용하여 대규모 도로·교통·통신·인프라 개선 및 현대화 공사 발주 예정 |
| 시장동향 | •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지속 발표 예정 |
| 경쟁동향 | • EU 역내 국가가 다수 수주하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진입 성공한 우리 기업 사례도 있음 |
| 진출방안 | • 현지 유력 파트너사를 통해 입찰정보 획득, 정부와 협상력을 가지는 것이 관건 |

프랜차이즈

- | | |
|-------------|--|
| 선정사유 | • 한국 문화 확산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 시장동향 | • 주변국 대비 글로벌 프랜차이즈 진출이 적고, 한국식 편의점 체인도 태동기인 상황 |
| 경쟁동향 | • 도미노, KFC, 맥도날드, 스타벅스 정도의 글로벌 프랜차이즈만 진출한 상황, 편의점은 미니마트가 점포 확장 중 |
| 진출방안 | • 대형 파트너사 발굴을 통한 프랜차이즈 인프라 구축과 공격적인 본사 협업 홍보를 통한 인지도 확대 전략 |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빅데이터, 클라우드, 경영·행정 정보 서비스 등)

- | | |
|-------------|--|
| 선정사유 | • 10만 명 이상의 우수한 IT 인력을 활용하여 한국산 소프트웨어의 현지화 와 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 |
| 시장동향 | • 뛰어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다수 창업, 1만 3,000개 이상의 소프트 웨어 기업이 개발 및 수출 진행 중 |
| 경쟁동향 | • IBM, SAP, Vmware, Concentrix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선제 진출하여 유럽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중 |
| 진출방안 | • 불가리아 내 IT 기업들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현지화 및 테스트 마케팅을 추진하여 유럽 시장 진출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불가리아 지역 KOTRA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소비재	불가리아 대형쇼핑몰 연계 Korea-Goods Week	2분기, 온오프라인)
	한국 유망 프랜차이즈 진출환경 조사(자료 발간)	연중 상시
	소비재 무역사절단	3~5월, 9~10월
방산	국제방산전시회(HEMUS) 한국홍보관 운영	6월 예정 (격년 개최)
전력기자재	한국-불가리아 에너지 무역사절단 및 에너지포럼	10월
	전력기자재 기업 투자진출 원스톱 창구	연중 상시
	주요 에너지 인프라 심층조사 및 투자진출 가이드북 발간 하반기	
의료바이오	중부유럽 의료바이오 사절단	9~11월
물 산업	한국-불가리아 물 산업 협력사절단	10~11월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불가리아 국제방위 및 보안 전시회 (HEMUS)	6월 3~6일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기술 전시회 (International Technical Fair 2026)	9월	플로브디프
2026 불가리아 의료 전시회 (MEDICUS, DENTO, GALENIA 2026)	10월 중순	플로브디프
바르나 뷔티 스페이스 화장품 전시회 (Varna Beauty Space)	10월 말	소피아
2026 불가리아 식품 전시회 (Inter Food & Drink Bulgaria)	11월	소피아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불가리아 제6회 대통령 선거	11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유로화 채택 및 유로존 편입	1월 1일	-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동현	관장	소피아무역관	+359-2-400-5574	rhee100@kotra.or.kr
2	진경원	과장	소피아무역관	+359-2-400-5571	james.jin@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불가리아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09-6 (95320)